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이 행복감과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효과*

김영남 고재홍†
경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257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유능성과 따뜻함의 두 차원에서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을 살펴보았다. 부부들은 4가지 대상(자신, 배우자, 평균적인 남편들, 평균적인 부인들)을 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 크기를 산출하였다. 그런 다음 두 고양 중 어느 것이 주관적 행복감과 부부관계의 질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부부들의 두 고양이가 문화성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결과는 첫째 부부들은 자기고양보다 배우자고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유능성 차원에 비해 따뜻함 차원에서 부부들은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을 많이 하고 있었다. 둘째, 남편은 자기고양보다는 배우자고양이 클수록 행복감이 높았으며, 관계만족도도 높았다. 반면 부인은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이 클수록 행복감이 높았고, 배우자고양이 클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대체로 개인주의 성향은 자기고양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집합주의 성향은 배우자고양을 매개로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요어: 자기고양, 배우자고양, 행복감, 부부관계의 질, 개인주의-집합주의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핵심인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자신에 대한 개념과 평가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알게 된다. 이런 사회비교의 결과는 개인의 감정 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큰 영향을 준다(Alicke, 1985). 이때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강력한 동기로 인해 자신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자기고양 편향(self-enhancement bias)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시간에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주변 세상을 낙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밝게 전망하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Myers & Diener, 1995; Taylor & Brown, 1988). 문화적으로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기고양이 보편적 현상이라면,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고양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기고양이 행복감에 긍정적 결과를 주듯,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긍정

* 본 연구는 2011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금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고재홍, (631-70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449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kopsy@kyungnam.ac.kr

적 지각은 부부관계의 지각에 긍정적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고양과 배우자 고양 편향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기고양 편향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려는 동기에서 생긴 것으로 서구 문화에서는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지수(IQ)가 평균인 100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은 타인들이 자신을 평가한 것 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Alicke, 1985). 실제로 미국 교수들 중 94%가 자신이 평균적인 교수들보다 실력이 있다고 평가하고(Cross, 1977),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자신이 거짓말을 할 확률보다 3배 정도 높다고 믿으며(Rosenblatt, 1993), 호주 직장인들 중에서는 단지 1%가 자신이 수행 능력이 평균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adey & Wearing, 1987). 또한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성격정보를 부정적 성격 정보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으며, 또 그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Kuiper, Olinger, MacDonald, & Shaw, 1985). 이처럼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기고양편향은 지각오류이지만, 자존심의 향상이나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기고양 동기는 사람들의 지각과정(Erdelyi, 1974), 기억과정(Greenwald & Pratkanis, 1984), 그리고 귀인과정(김혜숙, 1995; Miller & Ross, 1975) 등 다양한 판단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보편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이런 경향성이 개인주의 문화와 집합주의 문화에서 상당히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참조). 집합주의(collectivism)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개인주의(individualism) 문화가 발달한 북미 사람들에 비해 자기고양 편향도 덜 나타나거나 심지어 자기겸양(self-efficacy) 혹은 자기비하(self-criticism)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조공호, 김소연, 1998; Heine, & Lehman, 1997; Kobayashi & Brown, 2003; Takata,

2003).

그러나 자신의 평가에서 자기고양이 덜 나타나거나 자기겸양이 나타나는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 가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예: 부모, 자식,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고양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즉 자신이외에 부부관계 혹은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친밀관계에서 자신과 가까운 대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환상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부부는 자신의 배우자를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희, 구민경, 최인철, 2002). 이상의 연구결과들이 서로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문화의 차이때문일 수 있다. 집합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부부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고양적 평가는 자기고양 편향과 마찬가지로 행복감이나 관계의 질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김희진, 2005). 본 논문에서는 부부들의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배우자고양’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자기와 배우자평가의 비교대상

부부의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있어 “비교의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예: 고재홍, 전병우, 2003 참조). 지금까지의 자기고양 편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의되어 왔다. 첫째, 어떤 속성에 대해 평가자가 자신을 평가한 값(자기평가)과 타인들을 평가한 값(타인평가)을 비교하여, 자기평가 값이 타인평가 값보다 큰 경우는 자기고양편향이며 자기평가 값이 타인평가 값보다 작은 경우를 자기비하 혹은 자기겸양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Kenny(1994)는 자기고양편향을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p. 183)”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낫다(better-than-average)고 평가하는 정도로서, 자신을 일반적인 타인들보다 긍정적 속성에서는 높게 평가하는 반면, 부정적 속성에서는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고양 편향은 규범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기를 실제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일종의 착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속성에 대한 자기평가 값과 자신의 실제 값을 비교하여 자신의 실제 값보다 자신을 더 우수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자기고양편향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Taylor와 Brown(1988)은 자기고양편향을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p. 195)”이라 정의하였다.

부부들의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고양적인지는 비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타인들”보다 높은 평가를 한 경우에 고양이라 할 수도 있고,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경우에 자기고양(혹은 배우자고양)으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가 고양적인지의 여부는 (1) 평균적인 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2) 그 부인의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나 배우자의 실제 값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로 실제 값의 준거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Kenny, 1994 참조),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자기고양을 자신을 “평균적인 타인들”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의 효과

자기고양을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각자의 심리적 행복감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기고양 편향은 분명 지각오류이지만, 자존심의 향상 등과 같이 적어도 자신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자기고양편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성취영역에서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예: Sternberg & Kolligan, 1990). 또한 자신을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yd-Wilson, McClure, & Walkey, 2004).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며, 더 건강하다고 자신을 평가하는

환자들은 건강위험의 스트레스가 적었고, 자신과 유사한 환자들보다 더 건강하였다(Helgeson & Taylor, 1993).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는 대표적인 효과는 이것이 개인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이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Seligman과 Chikzentmihalyi(2000)이 주창한 긍정심리학의 중심 개념이다. Diener, Emmons, Lasen, 및 Griffin(1985)은 행복감을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이며 이들은 객관적이고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내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고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적대적인 상황이나 힘든 시간들 속에서조차도 행복해지는 능력이 있다(Myers & Diener, 1995; Taylor & Brown, 1988). 반대로 우울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항상 불평하며 모든 일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그 일이 사소한 일이든 엄청난 일이든 지간에 항상 그 일의 안 좋은 면만을 역설하는 만성적으로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Lyubomirsky, 2001). Abby와 Andrews(1985)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스트레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 타인에 의한 통제감, 사회적 지지, 수행정도, 이들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우울과 불안이라고 제시하였다.

한편 자기고양편향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John과 Robins(1994)에 따르면 자기고양편향은 자애적 성격(narcissistic personality)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자애적 성격 소유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Bogart, Benotsch, & Pavlovic, 2004), 자존감이 낮고 타인에게 의존적이었다(Kernis, 2001).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이 많으며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공격적이었다(Stucke & Sporer, 2002). Robin과 Beer(2001)는 자기고양편향은 대인관계에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백수경과 고재홍(2007)의 연구에서 자기고양적인 사람은 동료들로 부터의 인기가 낮았다.

이처럼 자기고양 편향의 효과가 양면적인데 반해,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부부관계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연애관계와 부부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관계에 대한 만족이 그 관계의 지속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관계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여하기,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사소통, 상대방과의 지각된 유사성 등이었다(Gottman & Levenson, 2000; Srivastava, McGonigal, Rochards, Butler, & Gross, 2006). Karney와 Bradbury(1995)에 따르면 애정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은 사회교환이론이다(Karney & Bradbury, 1995). 즉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관계에서 훌륭한 파트너를 갖고 있는 것은 큰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과 만족도에 긍정적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친밀관계에서 상대방의 성격특징, 태도, 신념 및 가치관 등은 관계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고양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백수경, 고재홍, 2007; Robin & Beer, 2001), 자기고양과는 달리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해당하는 배우자고양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성향에 따른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

문화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개인의 인지, 정서, 및 동기는 문화에 의해 구성되는 자기개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예: Markus & Kitayama, 1991 참조). 대체로 같은 문화권내의 사람들은 태도, 신념, 규범, 및 가치관을 공유하게 된다는 가정에서 문화에 따라 자기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하였다(Heine, 2008).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도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문화를 크게 집합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로 구분한다(예: Hofstede, 1980; Triandis, 1990). 예를 들어 Hofstede(1980)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간의 연대가 느슨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직계가족들만 돌보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변치 않는 충성의 대가로 평생 동안 그들을 보호하는 응집력이 강한 내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집단보다 개인이 우선권을 지내며 개인의 목표 성취, 만족, 기호, 판단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한편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보다 일차집단(가족, 친척, 공동체 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집단이 개인의 욕구 충족과 보상의 원천이며, 적절한 개인의 행동규범 등을 제공해 준다. 자기고양지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때로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되기도 한다(Brown, 1986; Hall & Taylor, 1976).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의 친한 친구를 다른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친구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보다 덜 책망하는 경향이 있다.

Hong, Benet-Martinez Chiu, 및 Morris(2003), Hong과 Mallorie(2004)의 문화의 역동적 구성이론(Dynamic Constructivist Theory of Culture)에 따르면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적으로 활성화되는 개인의 인지적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문화가 점화되었을 때 개인행동의 외적인 표현은 기준시점에서 활성화된 문화적 단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즉 개인은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한 원문화에 영향을 받겠지만, 구체적인 특정 시점에서는 상황에 따라 활성화되는 규범과 가치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식, 송유진 및 이성수(2008)의 연구에서는 점화된 문화에 따라 자기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즉 개인주의 문화를 점화시킨 경우는 자기고양이 나타난 반면, 집합주의를 점화시킨 경우는 자기겸양이 나타났다.

일차 집단을 중시하는 집합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기고양보다는 배우자와 같은 일차집단 구성원에 대한 평가에서 고양적 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부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최진희 등, 2002).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를 평균적인 다른 남편(혹은 부인)보다 높게 평가하는 현상(배우자고양)은 부부관계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문화간 비교뿐만 아니라 문화내 비교에서도 개인의 개인주의 문화성향이 클수록 자기고양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집합주의 성향이

클수록 배우자고양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평가차원에 따른 고양

사람들은 자신이든 타인이든 대상을 평가할 때, 여러 차원 상에서 평가한다. 그러나 내현적 성격이론의 체계를 분석한 결과, 타인평가에서 사람들은 그 대상을 도덕적 특성과 지적 특성의 두 차원상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berg, Nelson, & Vivekananthan, 1968). 또 다른 연구(Wojciszke, Bazinska, & Jaworski, 1998)에서도 일반인들에게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서 가장 알고 싶은 특징 10가지를 적게 하여 집계한 결과,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난 특성은 성실성(sincere), 솔직성(honest), 쾌활성(cheerful), 포용성(tolerant), 충성(loyal), 똑똑함(intelligent), 이타성(unselfish), 신뢰성(reliable), 친절성(kind)으로 나타났다. 이중 8개는 대인관계의 도덕성과 관련된 것들이며, 두 개만이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상대방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을 의미하는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Rosenberg 등(1968)의 연구 이래로, 유능성과 따뜻함의 두 차원은 대인지각에 있어 주요한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대인 평가나 인상 형성에 있어 지적 특성(즉, 영리하다, 탐구적이다 등)과 사회적 특성(즉, 친절하다, 따뜻하다, 사교적이다 등)이 주요한 두 가지 평가 차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궁호(1982)가 이러한 두 차원의 특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대인평가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집단에 대한 평가에서도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차원이 고정관념을 구성하고 있었다(김혜숙 등, 2003; Fiske, Cuddy, Glick, & Xu, 2002).

결국 개인의 평가나 집단의 평가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근거로 볼 때,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두 개의 독립적 차원인 유능성과 따뜻함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자신, 타인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 주로 그 대상이 얼마나 유능한지와 그 대상이 얼마나 따뜻한 특성을 지녔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도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을 두 차원(유능성과 따뜻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직관적으로는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 모두에서 유능성 차원에 비해 따뜻함 차원에서 고양적 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유능성 차원에 비해 따뜻함 차원에서의 평가가 훨씬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향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의 크기와 효과를 대인지각(평가)과 집단의 고정관념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두 차원(즉 유능성과 따뜻함)으로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남편과 부인의 자기고양과 배우자 고양 크기를 유능성과 따뜻함 중 어느 차원에서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자기고양은 주로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반면, 배우자 고양은 부부관계의 질에 더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고양은 주로 개인주의 성향과 관련되는 반면, 배우자고양은 집합주의 성향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의는 자기고양을 매개로 하여 주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반면, 집합주의는 배우자고양을 매개로 하여 주로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경남에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 된 부부들이었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이라는 누적 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즉 연구자가 목표로 한 표본수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목표치인 약 280쌍의 부부들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설문은 부부간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여 설문은 연구자에게 전달되는 동안 상대 배우자가 볼 수 없도록 철저히 밀봉하도록 하였다. 이중 부부 모두

표 1. 본 연구에서 부부들에게 평가하도록 한 대상들

평가자	평가대상			
	자신	배우자	평균적 남편	평균적 부인
남편	H1	H2	H3	H4
부인	W1	W2	W3	W4

가 응답한 257쌍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의 결혼기간은 1년-30년 사이이었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5.2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기간 10년 미만인 부부가 11.7%, 10-19년 80%, 20년-30년 17.8%, 30년 이상 0.3%이다. 남편의 평균나이는 42.48세(표준편차 4.62)이었다. 남편 나이의 분포는 30대가 19.1%, 40대가 74.6%, 50대 이상이 5%이었다. 부인의 평균나이는 40.03세(표준편차 4.27세)이었다. 부인 나이의 분포는 20대가 0.7%, 30대가 43.4%, 40대가 55.6% 50대가 0.3%이었다).

측정 도구

문화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문화성향 차이는 문화간 변산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내의 문화내 변산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성향은 집합주의-개인주의 차원과 수직주의-수평주의 차원 등 문화성향을 2차원으로 구분한 Triandis와 Gelfand(1998)의 척도를 고재홍(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집합주의-개인주의 차원은 모두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합주의 성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주로 자신과 타인 혹은 자신과 가족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들(예: 나는 진심으로 동료가 행복하길 바란다)이다. 개인주의 성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개인주의나 독립심을 묻는 문항들(예: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9점)” 9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주의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와 개인주의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 각각을 그 개인의 집합주의와 개인

주의 성향점수로 사용하였다).

Triandis와 Gelfand(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척도의 신뢰도(α)는 .81,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척도는 .82, 수평적 집합주의(Horizontal collectivism)척도는 .80, 수직적 집합주의(Vertical collectivism) 척도는 .7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주의 및 수평주의에 따라 분석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집합주의 척도의 신뢰도(α)는 남편과 아내에서 각각 .63과 .68이었으며, 개인주의 척도의 신뢰도는 남편과 부인에서 각각 .77과 .68이었다.

자기고양 및 배우자고양

본 연구에서는 자기고양 편향과 배우자고양 편향을 산출하기 위해서 부부 각자에게 4가지 평가(자신에 대한 평가, 배우자에 대한 평가, 평균적인 남편들에 대한 평가, 평균적인 부인들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평가를 위해 백혜영과 신희천(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김향련과 고재홍(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 5요인 척도를 참조하여 두 차원(유능성과 따뜻함)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먼저 유능성 차원의 평가문항으로는 유능하다, 지적이다, 자신감이 있다, 부지런하다, 영리하다 등의 5문항이었고, 따뜻함 차원의 평가문항은 따뜻하다, 착하다, 친절하다, 사교적이다, 정이 많다 등 5문항이었다. 각 평가문항들을 이용하여 부부들에게 (1) 먼저 자신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느 정도 유능한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로 구성된 7점 척도

2) 집합주의 점수와 개인주의 점수의 상관이 남편의 경우 .44, 아내의 경우 .38이었다. 일부 연구들에서 집합주의-개인주의를 (집합주의 점수 - 개인주의 점수)로 정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차원을 독립적으로 보고, 각각의 차원으로 보았다.

1) 응답 부부들의 연령과 결혼기간을 제외한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예: 연소득)은 묻지 않았다.

상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2)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평가하고, (3) 평균적 ‘남편들’ 및 (4) 평균적 ‘부인들’을 평가하도록 하였다(표 1 참조).

부부들이 각각 평가한 4가지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 크기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즉 남편의 자기고양은 표 1에서 (H1 - H3)의 크기이고 부인의 자기고양은 (W1 - W4)의 크기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고양의 산출은 남편의 배우자고양은 (H2 - H4) 크기, 부인의 배우자고양은 (W2 - W3) 크기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행복감 척도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백수경과 고재홍(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행복감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변안한 것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4개의 문항(예: 친구들에 비해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에게는 각각의 문항이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의 7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연구에서 보고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86이었으며, 3주에서 1년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72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부부들을 상대로 한 백수경과 고재홍(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이 척도의 신뢰도(α)는 남편은 .77, 부인은 .83 이었다.

부부관계의 질

부부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Crohan와 Veroff(1989)가 개발한 관계만족 척도(Relationship Satisfaction Scale)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관계에 대한 만족(예: 전반적으로 당신은 현 부부관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과 미래의 관계(예: 현재 당신의 부부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개인의 전망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부부들은 4점 척도(예: 매우 불만족-매우 만족)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부들을 상대로 한 Crohan과 Veroff(1989)의 연구에서 제시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남편의 신뢰도 계수(α)는 .83, 부인은 .85이었다. 한편 이 척도를 사용한 또 다른 연구인 Acitelli, Rogers, 및 Knee(1999) 연구에서 보고된 남편의 신뢰도 계수(α)는 .87, 부인의 신뢰도 계수(α)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6문항으로 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남편의 경우 .87이고 부인은 .89이었다.

결 과

부부들의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 크기

평균적인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알아 본 결과 부부들 중 남편의 경우는 약 75%, 부인의 경우는 약 67%가 자기고양자이었다. 한편 부부들 중 배우자고양 비율은 남편의 경우 약 87%, 부인의 경우 약 80%이었다. 즉 자기고양자 비율보다는 배우자고양자가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부부들의 자기고양 크기와 배우자고양의 크기를 두 평가차원에서 살펴보았다(표 2 참조).

표 2. 부부들의 차원별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 크기의 평균(표준편차)

	자기고양		배우자고양	
	유능성	따뜻함	유능성	따뜻함
남편	0.27(0.86)	0.55(0.92)	0.70(0.98)	0.83(1.04)
부인	-0.04(1.07)	0.48(0.92)	0.68(1.08)	0.73(1.26)

주. 점수가 +이면 고양, -이면 겸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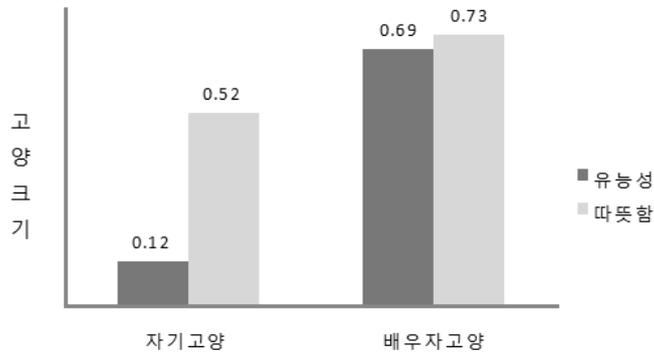


그림 1. 부부의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 크기 비교

남편과 부인의 평가차원별 자기고양 및 배우자고양 (평가대상별)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자(남편, 부인)×평가대상(자신, 배우자)×평가차원(유능성, 따뜻함) 모든 요인이 반복측정된 3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255)=5.22, p<.05$. 즉 남편($M=0.59$)이 부인($M=0.46$)에 비해 자신의 부부를 더 고양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평가대상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255)=85.22, p<.01$. 즉 자기고양($M=0.32$)보다는 배우자고양($M=0.73$)이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평가차원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255)=52.40, p<.01$. 즉 부부들은 유능성 차원 ($M=0.40$)에 비해 따뜻함 차원($M=0.65$)에서 자기 부부를 더 고양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넷째, 평가대상과 평가차원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255)=40.04,$

$p<.0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이 상호작용 효과를 사후검증(이하 LSD) 결과, 그림 1에서 보듯, 배우자 고양의 경우에서도 유능성 차원($M=0.69$)과 따뜻함 차원($M=0.78$)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F(1, 255)=4.04, p<.05$, 평가대상이 자신인 자기고양의 경우에는 유능성 차원($M=0.12$)보다는 따뜻함 차원($M=0.52$)에서의 훨씬 높았다, $F(1, 255)=97.69, p<.01$. 다섯째 평가자×평가대상×평가차원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255)=4.08, p<.05$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단순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부인의 경우 평가대상과 평가차원간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255)=24.67, p<.01$. 즉 자기고양의 경우 유능성 차원($M=-0.04$)에서 보다는 따뜻함 차원($M=0.48$)에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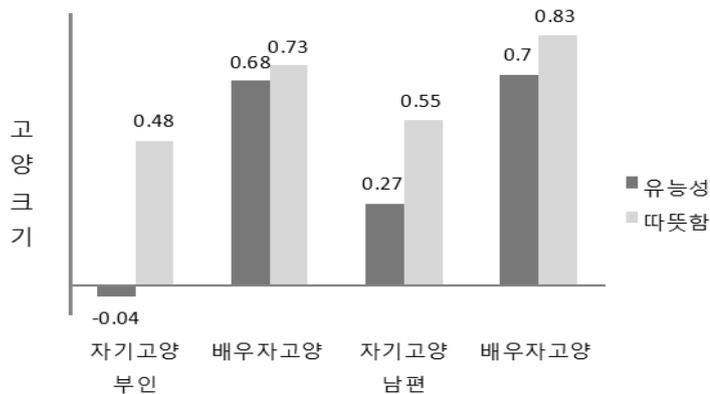


그림 2. 두 차원에서 나타난 부인과 남편의 자기고양 및 배우자고양 크기

타났으며, 배우자(남편) 고양은 유능성($M=0.68$)과 따뜻함 차원($M=0.73$)에서 모두 비슷한 크기의 배우자고양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남편의 경우 평가대상과 평가차원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255)=3.04$, *ns*. 즉 자기고양의 경우도 유능성 차원($M=0.27$)에서 보다 따뜻함 차원($M=0.55$)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부인) 고양도 유능성($M=0.70$)보다 따뜻함 차원($M=0.83$)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두 고양에 따른 행복감/부부관계의 질

부부들의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의 크기에 따른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고양대상(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부부 개인의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표준화(standardized)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 남편의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에 따른 행복감의 전체 설명변량(R^2)은 약 21%이었으며, 남편의 행복감은 두 차원의 자기고양과는 무관하나, 두 차원의 배우자고양이 클수록 행복감도 높게 나타났다

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은 자기 부인을 유능성 차원에서 고양적으로 평가할수록($\beta=.32$), 또한 따뜻함 차원에서 고양적으로 평가할수록($\beta=.17$), 행복도가 높았다. 표준회귀분석이므로 특별히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지표(tolerance)도 비교적 양호하였다.

한편 부인의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에 따른 행복감의 전체 설명변량(R^2)은 약 13%이었으며,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 모두가 행복감과 관련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부인은 자신을 유능성 차원에서 고양적으로 평가할수록 행복감이 높았으나($\beta=.18$), 따뜻함 차원의 고양적 평가는 행복감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beta=.07$). 배우자고양에서도 유능성 차원에서 남편고양은 부인의 행복크기는 무관하였으나($\beta=-.01$), 따뜻함 차원에서의 남편고양은 부인의 행복감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beta=.23$).

다음으로는 부부의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의 크기에 따른 부부관계의 질(관계만족도로 측정)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고양대상(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에 대한 고양크기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부부 각자의 관계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표준화 중다회귀분석을

표 3. 두 차원별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에 따른 부부의 행복감

종속변인	예언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β)	t	p	공차 (tolerance)	R^2
남편의 행복	자기고양 (유능성)	.08	.08	.06	0.97	.33	.67	.21
	자기고양 (따뜻함)	-.03	.07	-.03	-0.41	.68	.69	
	배우자고양 (유능성)	.34	.07	.32	4.82	.00	.71	
	배우자고양 (따뜻함)	.17	.07	.17	2.58	.01	.73	
부인의 행복	자기고양 (유능성)	.18	.07	.18	2.59	.01	.64	.13
	자기고양 (따뜻함)	.08	.08	.07	1.05	.30	.70	
	배우자고양 (유능성)	-.01	.07	-.01	-0.14	.89	.58	
	배우자고양 (따뜻함)	.19	.06	.23	3.24	.00	.64	

표 4. 두 차원별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에 따른 부부관계의 질

종속변인	예언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β)	t	p	공차 (tolerance)	R ²
남편의 관계만족	자기고양 (유능성)	-.08	.04	-.14	-2.25	.03	.67	.27
	자기고양 (따뜻함)	-.01	.04	-.02	-0.29	.77	.69	
	배우자고양 (유능성)	.20	.03	.38	5.75	.00	.70	
	배우자고양 (따뜻함)	.08	.03	.17	2.61	.01	.73	
부인의 관계만족	자기고양 (유능성)	.06	.04	.12	1.80	.07	.64	.29
	자기고양 (따뜻함)	-.08	.04	-.12	1.85	.07	.69	
	배우자고양 (유능성)	.06	.04	.10	1.46	.15	.58	
	배우자고양 (따뜻함)	.20	.03	.41	6.14	.00	.64	

실시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은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 남편의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에 따른 관계만족도의 전체 설명변량(R^2)은 약 27%이었으며, 남편의 관계만족은 예외적으로 유능성 차원에서 자기를 낮게 평가할수록(β -.14) 높았으며, 남편은 부인을 유능성 차원과 따뜻함 차원 모두에서 높게 평가할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았다, 각각 β -.38, β -.17, p s<.01. 한편 부인의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에 따른 관계만족도의 전체 설명변량(R^2)은 약 29%이었으며, 부인의 관계만족은 자기고양과는 무관하나 배우자고양에서는 배우자를 평균적인 남편들보다 더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β .10), 또한 배우자를 평균적인 남편들보

다 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할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았다(β .41). 다중공선성 지표(tolerance)도 비교적 양호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에서 행복감과 관계만족은 자기고양과는 대체로 무관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배우자고양이 클수록 더 행복하고 관계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문화성향과 두 고양 편향간의 관계

앞서 제시된 결과들에서 부부들은 자기고양보다는 배우자고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조건에

표 5.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성향에 따른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간의 관계

		개인주의 성향	집합주의 성향
남편	자기고양	.22**	.08
	배우자고양	.04	.15*
부인	자기고양	.18*	.25**
	배우자고양	.07	.19*

* p <.05, ** p <.01

표 6. 문화성향과 행복/관계질 사이에서 두 고양의 매개효과

	매개경로	매개효과(z)
남편	개인주의 → 자기고양 → 행복	1.88*
	개인주의 → 자기고양 → 관계의 질	0.69
	집합주의 → 배우자고양 → 행복	1.51
	집합주의 → 배우자고양 → 관계의 질	1.96*
부인	개인주의 → 자기고양 → 행복	2.17*
	개인주의 → 자기고양 → 관계의 질	1.84
	집합주의 → 배우자고양 → 행복	1.28
	집합주의 → 배우자고양 → 관계의 질	1.34

* $p < .06$, * $p < .05$

서는 자기겸양이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자기고양보다는 배우자고양이 클수록 행복감과 관계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합주의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의 두 문화성향이 각각 두 종류의 고양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5 참조).

표 5에서 보듯, 대체로 남편과 부인 모두 개인주의 성향이 클수록 자기고양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각각 $r = .22$, $r = .18$, $ps < .05$), 자기고양은 집합주의 성향과는 무관하였다. 반면, 배우자고양은 남편과 부인 모두에서 집합주의 성향과 관련이 있었다(각각 $r = .15$, $r = .19$, $ps < .05$).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인의 경우에서는 부인의 집합주의 성향이 클수록, 배우자고양뿐만 아니라 자기고양도 크게 나타났다($r = .25$, $p < .01$).

개인주의는 자기고양을 매개로 하여 주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집합주의는 배우자고양을 매개로 하여 주로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그 결과의 요약이다.

표 6에서 보듯, 남편과 부인의 개인주의는 자기고양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1982) 검증 결과 각각 $z = 1.88$, $p < .06$, $z = 2.17$, $p < .05$. 그러나 남편의 집합주의는 배우자고양을 매개로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z = 1.96$, $p = .05$, 아내의 집합주의와 부부관계의 질 사이에서 배우자고양은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z = 1.34$, ns .

논의 및 결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환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결과를 준다는 연구이래로 자기고양 등과 같은 긍정적 착각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자기고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예: 고재홍, 전병우, 2003; 조공호, 김소연, 1998; Heine & Lehman, 1997; Takata, 2003)에서는 자기고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자기겸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문화의 차이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인은 집합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고양이 작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집합주의에서는 자기고양은 작지만, 부부관계 혹은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친밀관계에서 자신과 가까운 상대방에 대해서도 고양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기고양과 같이 개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부부는 자신의 배우자를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희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을 집합주의-개인주의 차원에서의 문화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하였다. 즉 개인주의 문화에서 보편적인 자기고양이 개인에게 긍정적 결과(예: 행복감)를 주듯, 집합주의 문화에서 잘 나타날 것으로 가정한 배우자고양도 개인에게 긍정적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배우자고양은

개인적 행복감이외에도 관계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남편과 부인의 자기고양 편향과 배우자고양 편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고양을 다룬 많은 선행 연구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여러 평가차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요인(혹은 차원별) 자기고양의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상형성 연구들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2가지 차원(즉 유능성과 따뜻함)으로 분리하여 자기고양과 배우자 고양을 살펴보았다. 부부들을 상대로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의 크기는 자기 및 배우자를 평균적인 타인과 비교를 통한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부부들은 자기고양보다 오히려 배우자 고양 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최진희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유능성 차원 보다 따뜻함 차원에서 자기고양과 배우자 고양 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평가척도에 사용된 특질들(traits)의 관찰가능성(observability)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Funder & Dornhorst, 1987). 개인의 유능함은 학력, 직업 등으로 나타나 비교적 확인이 가능한 반면, 따뜻함은 성품과 관련된 평가로서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다. 즉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부부들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서 왜곡이 용이했을 것이다. Funder와 Dornhorst(1987)에 따르면, 관찰가능성이 낮은 특질들(예: 양심성)보다 관찰이 용이한 특질(예: 외향성)의 평가에서 평가자간 일치도가 높았다. 유능성 차원보다는 따뜻함 차원에서 배우자 고양 이 나타난 결과에 대한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즉 부부들은 서로 정서적 지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가 서로에게 유능함보다는 더 따뜻한 모습을 보여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따뜻함 차원에서 나타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고양편향이 아니라 실상 일 수 있다.³⁾

둘째 남편과 부인의 자기고양 편향과 배우자고양 편향의 크기에 따른 행복감과 부부관계의 질 차이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는 부부들은 배우자를 고양적으로 평가할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행복감은 자기고양보다는 배우자 고양과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따뜻함 차원에서의 배우자 고양 이 행복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관계의 만족도에서는 자기고양에 비해 배우자 고양의 기여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 같은 1차 집단을 중시하는 집합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에 대한 고양적 평가보다도 자식이나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그들과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부부들 개인이 지닌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성향 크기와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 편향크기가 관련있는지를 살펴보았다. Heines와 Lehman(1997)의 연구이래로 여러 연구들에서 개인주의 성향이 큰 문화권에서는 자기고양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집합주의 성향의 문화에서는 자기고양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자기겸양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만약 자기고양이 개인주의 성향과 관련되고, 배우자고양은 집합주의 성향과 관련된다면, 개인주의 성향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고양 이 클 것이고, 이는 주로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반면, 집합주의 성향이 큰 사람은 배우자고양 이 클 것이고, 이는 주로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에서 개인주의 성향은 자기고양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 고양은 남편의 경우에서만 집합주의 성향과 부부관계의 질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매개효과가 매우 낮았지만, 이는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이 모두 자존감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며, 자존감의 영역이 문화에 따라 다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주의 및 집합주의 성향의 차이는 문화내 변인을 다루었기 때문에 문화간 변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추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협동관계이기 때문에 문화와 무관하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도 배우자 고양 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

3) 이는 한 십사자의 좋은 제언임을 밝혀둔다.

고 표집이 임의표집이었기 때문에 표집의 대표성을 보장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실제 부부라서 자료수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부부 사례 수(257쌍)가 충분하지 않았다.

둘째, 부부의 행복감이나 결혼관계의 질 등은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평가이외에도 또 다른 요인들(예: 수입의 크기, 학력, 자녀문제 등)이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의 나이와 결혼기간을 제외한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행복감과 관계만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다양한 부부요인들(예: 취미와 가치관의 유사성)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자기고양이나 배우자고양을 통해 행복감과 관계만족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의 취미, 자녀교육관 등과 같은 생각들이 자신과 배우자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은 배우자 고양이 따른 행복감과 부부관계의 질을 살펴 본 점과 자기고양과 배우자 고양을 유능성과 따뜻함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점들은 본 연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문화내변산으로 살펴본 것이긴 하지만,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이 집합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과 관련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점도 본 연구의 특징이다. 이는 자기고양이 서양문화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인데 반해, 우리나라 자료에서는 자기고양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추론 한 것이다. 또한 김정식 등(2008)의 연구에서 어떤 문화를 접화시키느냐에 따라 자기고양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 사실로 부터도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합주의가 배우자 고양이 관련된다는 증거는 아직 분명치 않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성향과 자기고양 및 배우자 고양의 관련성은 문화간 변산이나, 문화접화 등의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재홍(2001). 집합주의-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분배규

범의 선호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1-16.

고재홍, 전병우(2003). 두 자기평가 편향과 자존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1-16.

김정식, 송유진, 이성수(2008). 문화접화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77-194.

김향련, 고재홍(2007).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89-105.

김혜숙(1995).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아존중이 자기고양 귀인과 집단고양 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9(1), 45-63.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2003).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김희진(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백수경, 고재홍(2007). 자기고양편향이 행복감과 인기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89-104.

백혜영, 신희천(2007). 애정관계에서의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3), 1-14.

조궁호(1982). 지적 평가정보와 사회적 평가정보가 호오차원 인상과 화친차원 인상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사회심리연구, 1, 78-100.

조궁호, 김소연(1998). 겸양 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169-189.

최진희, 구민경, 최인철(2002). 관계고양지각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53-74.

Abby, A., & Andrews, F. M. (1985). Modeling the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life qua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1-34.

Acitelli, L. K., Rogers, S., & Knee, C. R. (1999). The role of the identity in the link between

- relationship thinking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 591-619.
- Alicke, M. D. (1985). Global self-evaluation as determined by the desir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621-1630.
- Bogart, L. M., Benotsch, E. G., & Pavlovic, J. D. (2004). Feeling superior but not threatened: The relation of narcissism to social comparis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6*, 35-44.
- Boyd-Wilson, McClure, J., & Walkey, F. (2004). Are wellbeing and illusory perceptions linked? The answer may be yes, but.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6*, 1-9.
- Brown, J. D. (1986). Evaluations of self and others: Self-enhancement biases in social judgments. *Social Cognition*, *4*, 353-376.
- Crohan, S., & Veroff, J. (1989). Dimensions of marital well-being in black and white newlywe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379-383.
- Cross, P. (1977). Not can but will college teachers be improved? *New Directions of Higher Education*, *17*, 1-15.
- Diener, E., Emmons, R. A., La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Erdelyi, M. H. (1974). A new look at the new look: Perceptual defence and vigilance. *Psychological Review*, *81*, 1-25.
- Fiske, S. T., Cuddy, A.,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Funder, D. C., & Doborth, K. M. (1987). Differences between traits: Properties associated with interjudge agre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409-418.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37-745.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pp. 129-178). Hillsdale, NJ: Erlbaum.
- Hall, J., & Taylor, S. E. (1976). When love is blind. *Human Relations*, *29*, 751-761.
- Headey, B., & Wearing, A. (1987). The sense of relative superiority—central to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497-516.
- Heine, S. J. (2008). *Cultural psychology*. NY: Norton.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68-1283.
- Helgeson, V. S., & Taylor, S. E. (1993). Social comparisons and adjustment among cardiac par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171-1195.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ng, Y., Benet-Martinez, V., Chiu, C., & Morris, M. W. (2003). Boundaries of cultural influence: Construct activation as a mechanism for cultural differences in social percep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453-464.
- Hong, Y., & Mallorie, L. M. (2004). A dynamic constructionist approach to culture: Lessons learned from personality psycholog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 59-67.
- John, O. P., & Robin,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19.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enny, D. A. (1994). *Interpersonal perception*. NY: Guilford.
- Kernis, M. H. (2001). Following the trail from narcissism to fragile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2*, 223-225.
- Kobayashi, C., & Brown, J. D. (2003). Self-esteem and self-enhancement in Japan and Americ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567-580.
- Kuiper, N. A., Olinger, L. J., MacDonald, M. R., & Shaw, B. F. (1985). Self-schema processing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content: The effects of vulnerability on depression. *Social Cognition, 3*, 77-93.
- Lyubomirsky, S. (2001).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4*, 239-249.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es in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 231-225.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Robin, R. W., & Beer, J. S. (2001). Positive illusion about the self: Short-term benefits and long-term co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340-352.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196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82-294.
- Rosenblatt, R. (1993). The 11th commandment. *Family Circle, 25*, 30-32.
- Seligman, M., & Ch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rivastava, S., McGonigal, K. M., Richards, J. M., Butler, E. A., & Gross, J. J. (2006). Optimism in close relationships: How seeing thing in a positive light make them s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143-153.
- Sternberg, R. J., & Kolligan, J. (1990). *Competence considered*. CT: Yale University Press.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toward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 509-532.
- Takata, T. (2003). Self-enhancement and self-criticism in Japanese culture: An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542-551.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6, pp. 41-133).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and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Wojciszke, B., Bazinska, R., & Jaworski, M. (1998). On the dominance of moral categories in impression fo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1251-1263.

Self - and Spouse - Enhancement, Subjective Happiness, and Marital Quality in Married Couples

Yeong Nam Kim Jaehong Ko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lf-enhancement and spouse-enhancement of 257 married couples on the two dimensions of competence and warmth. The couples were asked to evaluate themselves, spouses, husbands in general, and wives in general. Based on their responses, the magnitude of self-enhancement and spouse-enhancement was computed in order to determine which of the two enhancement factors plays a more significant role in the subjective happiness and marital quality, and how the two enhancements are related to individuals' cultural disposition.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uples enhanced their spouse rather than themselves, in particular, on the measure of warmth. Specifically, the couples were shown to demonstrate more of self-enhancement and spouse-enhancement on warmth than on competence. Second, the happiness of the husband was affected by spouse-enhancement, not by self-enhancement, increasing the relational satisfaction as well. However, the happiness of the wives was influenced by self-enhancement and spouse-enhancement with the relational satisfaction being improved by spouse-enhancement. Third, the couple's individualistic propensity exerted an influence on their happiness mediated by self-enhancement and their collectivistic disposition impacted the marital quality mediated by spouse-enhancement.

Keywords: self-enhancement, spouse-enhancement, happiness, marital quality, individualism-collectivism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4월 11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5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5월 26일